삼위 일체 하나님을 예배함: 전 세계와 오랜 역사를 통한 기독교 지혜의 얻음과 나눔(2010 판)

들어가는 말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전 세계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구전과 글로 표현된 양식들을 통해서 여러 문화와 세대들 그리고 몇 세기를 걸쳐서 배우고 나누는 일에 적합합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잠언서와 잠언과 같은 시편들, 예수님의 산상 수훈과 바울의 여러 권면들을 포함하여 성경 문학의 한 중요한 가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힘줄들이 서로 잘 짜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범세계적 개혁 교회 공동체(WCRC)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범세계적으로 서로 친교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근간이 되는 하나의 연습입니다. 서로 같이 나눈 지혜가 성경적 지혜를 신실한 반영하고, 적용한 것이며,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고전 1.24)에 대한 신실한 간증이 될 때에 지혜를 서로 나누는 일은 바벨이 아닌 오순절의 상징, "지혜의 영"(엡 1.17)인 성령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진 글들은 기독교 예배의 관행에 대한 잠언들입니다. 이 글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실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들의 모음집은 개혁 주의 신앙에 근거한 기독교인들에 의해 모아졌습니다. 이 모음집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보편적”인 것으로 독특한 역사와 신학적 신념들, 그리고 관행들을 갖고 있는 범 세계적 개혁주의 공동체들 안에서의 참여를 반영합니다. 이 문서는 2004 년도에 아프리카 가나의 아크라에서 열린 세계개혁교회 연맹(WARC: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총회와 2005 년도에 네델란드의 위트레흐트에서 열린 개혁 에큐메니칼 협의회 (REC: Reformed Ecumenical Council) 총회에서 제시된 것에 대한 방안책으로 이 두 단체의 소속된 교회들과의 협의 끝에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서는 2010 년도에 미국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렸던 WCRC (연합을 위한 협의회) 모임을 위한 예배 담당 팀에 의해서 만들어 졌고 , 이를 위해서 세계 곳곳의

개혁주의 교단을 포함해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 교사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WCRC 에 소속된 예배와 영적 회복을 도모하는 분과에서 정교하게 다듬어 졌습니다.

이 문서는 예배와 영적 회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으로 우리 서로가 더 깊고 더 심오한 표현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은 교단 소속 교회에 어떤 정해진 예배 관행을 강요하거나 소속 교회들이 이런 지혜를 이미 벌써 온전하게 실행하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경우에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이 문서는 한 특정한 교회나 교단 안에서, 은사나 도전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관행들의 장단점에 대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각 잠언을 읽은 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더 신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주제에 관련된 관행들의 지혜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등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잠언은 신학적 신념과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결실을 맺는 사역에 꼭 필요한 관행, 간증과 영적 분별을 위한 대화 사이의 연결점들을 탐구하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2. 이 문서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들을 가진 교회들, 교단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대화들을 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잠언을 읽은 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실천하시기 위해 우리의 독특한 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계십니까?"와 "하나님은 이것을 신실하게, 특히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운 빛가운데서 실천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 라는 질문을 할 수있습니다.

3. 이 문서는 심도있는 연구와 좀 더 정교한 연구를 서로 도와가며 할 수 있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여기의 각 잠언은 성경 주해, 신학적 사색, 그리고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은 학문적이며, 기독교적인 묵상의 요약입니다. 이런 각 잠언은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나갈 때 부딪히는 도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묵상을 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음집은 최종결과물도, 다 완벽하게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결론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 소속의 개 교회나 상호 협조하는 파트너 교회들도 쉽게 그들의 자료들로 이 모음집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열릴 WCRC 모임들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독특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지혜의 말씀들을 추가함으로써 이 모음집을 수정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대화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보다 나은 문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성령의 힘으로, 삼위 일체 하나님께 신실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들과 이 말씀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I. 부르심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 이름으로 모임

1.1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터 부름을 받음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를 수있음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말씀과 성령을 통해-1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찬란하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인
예수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가능케 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 땅위에 사시는 동안
“아버지께” 찬양을 돌리며, “성령 안에서 넘치는 기쁨”(눅 10.21),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사시는” (히 7.25)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공동체는 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회중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확신시키고, 고치시며,
말씀선포와 합심기도의 성화된 행위를 통하여,
세례, 성찬, 교제, 봉헌 그리고 간증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서로 연합함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_____
1.벨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참조.

1.2 함께하는 모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함께 모이기를 등한시 하지 않는” (히 10.25)
예배 공동체는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즐겁게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성찬식을 즐겁게 치르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의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여러방면으로 "불가능"하다고 낙인찍은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예배자들을 초대하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에 참여케 하고,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각자의 개인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훨씬 더 큰 합창에 참여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
평화의 줄로 성령의 일치함,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이 하나됨,
젊은이와 늙은이, 그리고 모든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하나됨을 2
표현하는 회중은 복이 있습니다.
_____
그랜드 래피즈 이벤트를 위한 WCRC 자료에서 참조

1.3 성령
성령님이
이성과 감성 모두를 통해,
영적 훈련과 놀라운 사건 모두를 통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예배들이나 예기치 않게 벌어진 순간들 모두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식하는
공동체는 지혜롭습니다.

예배의 영구한 가치나 영적인 능력이
우리 자신의 창의력, 상상력, 지성, 또는 감정의존하지 않고
이 모든것 중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선택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부터 오는 것임을 인식하는 예배 공동체는 지혜롭습니다.
진실로, 예배는 받는 선물이지,
달성해야 할 업적이 아닙니다.

1.4 문화에 대한 긍정과 저항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는
교회는 지혜롭습니다.
복음의 온전함을 타협하는
문화의 양상을 거부하고.
어떤 문화에도 구속되지 않고, 개개의 문화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자신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감사하는
교회는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문화의 한계를 초월하지만, 상황적이기도하고,
여러 문화를 연계하기도 하지만, 반 문화적이기도 합니다.3

---

3 예배와 문화에 대한 루터교 세계 연맹 나이로비 성명서 참조.

1.5 구속된 피조물의 선함

예배가 모든 피조물들이 드리는 찬양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교회는 지혜롭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신,
성경책, 물, 떡, 그리고 포도주를 통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표현하는 몸짓과 자세임을
확실히 하는 회중은 지혜롭습니다.

1.6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함

성별, 연령, 인종, 능력을 막론하고 리더십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훈련시키고, 인증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예배 신학과 관행들에 대해 중요한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는 지혜롭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전적으로,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참여하도록(바티칸 II 참조)
준비 시키며, 아직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예배 인도자들은 지혜롭습니다.

1.7 예술적 표현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개의 지역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인,
음악과 춤,
연설과 침묵,
시각 예술과 건축이라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와 찬양이 드려지는
회중은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가꾸고 다듬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감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도록 도와주는
예술가들은 복이 있습니다.

십계명중 두 번째 계명이 주는 한계를 인식하고,
동시에 하나님으로 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경안의 예술가들을 본보기로 삼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출 35.30 이하)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예술가는 지혜롭습니다.

다른 시간대와 다른 문화를 반영하는
신실한 노래와 예술작품들을
선물로 기쁘게 받으며
예배를 위한 새로운 작품들을 통해
교회의 보편성을 공고히 하고
창의력을 기르도록
노력하는 교회는 지혜롭습니다.

II.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선포함

2.1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과 기쁨으로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그 곳은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2.2 그리스도 중심인 말씀의 넓이

성경읽기와 설교를 통해
구약과 신약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 넓은 세계를 접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을 선포함으로
믿는자들을 양육하는
회중은 지혜롭습니다.

2.3 안식, 증인, 정의와 평화로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강력히 맞서는
회중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죄와 악에서 회개하도록,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평화를 선포하도록,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함”(미가 6.8)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을
초청하는 설교자는 지혜롭습니다.

2.4 우상 숭배를 거부함
하나님 대신 예배하도록 유혹하는 우상들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생겨난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저항하는 방법으로
하나남의 말씀을 선포하는 회중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히 1.3)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생각함으로
이 왜곡된 것들에 도전하는
회중은 복이 있습니다.

2.5 신조 : 믿음의 응답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드려지고,
이 말씀이 믿는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살전 2.13)
신앙고백과 찬양으로,
회개와 봉사의 헌신으로,

긍휼함과 정의에 대한 열정으로,
개인 및 공동의 활동으로,
새로운 순종과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이끄는 회중은 지혜롭습니다·

믿는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도록
초청하는 회중은 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고 형성하며,
다른 문화와 다른 시간대를 막론하고
믿는자들과 우리를연합시킴으로 인해
교회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 지역 사회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합니다·

III. 기도와 헌금으로 하나님께 응답함

3.1 찬양과 감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하고, 낭송하며, 송축하며,
찬양과 감사 (시 50.14, 히 13.15)를 드리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 형식을
성경 자체가 이야기 형태(예, 시 136)로 표현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부터
배우고 의지하는 회중은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중들의 기도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3.2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승천하시고 항상 현존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인정하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롬 8.26-27)것을 인정하고,
"이 현존하는 어두움의 우주적인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엡 6.12)
예배 공동체는 복이 있습니다.

3.3 인간 경험의 전 영역
시편의 예를 따라
하나님께 정직과 신뢰의 기도를 장려하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말로, 노래로, 침묵으로,
춤으로, 극화 또는 시각적으로 된—
인간 경험의 전 영역을 표현하고 있는
“영혼의 해부학”이며

축하와 애도의
신뢰와 절망의
간구와 중보의
감사와 고백의
치유와 희망의 기도들입니다·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시는 세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4]

---

4 "영혼의 해부"라는 문구는 존 캘빈의 시편주석에 나온다.

3.4 은사와 봉헌

헌신과 예배의 행위로
은사, 시간, 재능을
감사하게 드리는 실천이 있는 교회는 지혜롭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과 이웃에 봉사를 하는 것이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러가지 선물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IV. 세례와 성찬

4.1 세례와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

"제자를 만들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마 28.19)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라" (눅 22:19-20)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표들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키주시며
편안함과 도전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려고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4.2 세례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알리는 회중은 복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쓰는 물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징하고 인증하는것이라고
선포하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입양시키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새롭게하시고, 힘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이
죄와 악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그 안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포용하며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징이고 인증이라고
선포하는 회중은 복이 있습니다.

세례를 즐겁게 치르고,
세례가 믿음의 약속대로 살기위한
은혜와 격려의 도구로 기억하는
공동체는 지혜롭습니다.

4.3 주님의 성찬

주님의 성찬을
감사, 친교, 그리고 희망의 축제로
정기적으로 행하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
떡을 나눌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면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감사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는 선물을 감사히 받고,
다가올 천국 만찬을 기대하는 회중은 복이 있습니다.

그 가지각색의 하나됨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함으로,
은혜와 진리 (고전 11.29-33) 로
서로에 대한 환대를 표현함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남을 대접하는 사역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를 반영함으로,
이 성찬을 나누는
회중은 복이 있습니다.

V. 축복받고 파송된 사람들의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봉사

5.1 하나님의 보내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으로 격려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도전된
회중은 복이 있습니다.

5.2 매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 읽기와 묵상을 강조하며
신자들에게 매일 예배를 격려함으로
신앙을 키우는
공동체는 지혜롭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찬양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시편, 찬송가, 영적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세미한 침묵”을 들으며 (왕상 19.12)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매 순간을 삽니다.

5.3 환대와 복음화
환대가 공중 예배와 개인 생활에서 모두
실행되는 공동체들은 복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손님이 환영받고 포용되는 곳,
가난하고 소외되고 질병에 걸리고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며 (마 28.19 참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초청과 도전을 받는
공동체들은 복이 있습니다.

5.4 예배를 위한 형성
모든 연령과 재능 있는 신도들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벧후 3.18)시키기 위해서
초청하고 도전하는
회중들은 지혜롭습니다.

성경, 교리, 관행,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충실하게 상호 작용을 하도록 도와주는
회중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배 관행의 의미에 대한 교육과 심사숙고를 통해.
예배를 심화하는 회중들은 지혜롭습니다.

5.5 예배, 긍휼, 그리고 정의

공중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메세지를
지향하는 회중들은 복이 있습니다.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와 공공 영역에서 선포되는 증거가
서로 일관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회중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와 증거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증입니다·

위선을 깨뜨릴 수있는 유일한 분인
성령님의 해방시키시는 사역을
받기 원하는 회중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 예배와 증거가
진정으로 받아 들여 질 수 있습니다·

5.6 마라나타 : 예배와 기독교인의 소망

오직 현재의 순간만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회중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충만을 위한
모든 피조물의 신음 소리을 표현합니다.

그들의 전 삶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라는
기도에 확실한 소망을 둔 것으로
요약되는 회중들은 복이 있습니다.